

샬롯 퍼킨스 길먼: 사회를 치료하는 여성 작가/의사

손정희 · 한우리

차 례

- I. 머리말
- II. 남성적 의학담론에 개입하는 여성지사: 「누런 벽지」와 「의사 클레어의 진료소」
- III. 가정과 사회를 치료하는 여성작가/의사: 「변화 일으키기」, 「젊은 아내들에게」, 「오래된 물」
- IV. 건강한 여성, 건강한 사회: 「비와이즈」에 나타난 대안적 유토피아 경제 공동체
- V. 맺음말

I. 머리말

“나는 마침내 빠져나왔어 . . . 벽지를 죄다 뜯어버렸지. 당신이 다시는 나를 가두지 못하도록 말이야”(182).¹⁾ 샬롯 퍼킨스 길먼(Charlotte Perkins Gilman)의 대표작 「누런 벽지」(“The Yellow Wall Paper” 1892)에 등장하는 광기어린 아내의 일같은 오래도록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왔다. 이는 길먼에 관한 국내외 비평의 상당수가 이 단편소설을 분석하는데 치중해있음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²⁾ 비평가들은 대부분 이 텍스트에서 날카롭게 드러나는

1) 길먼의 단편 소설 가운데 “The Yellow Wall-paper,” “Dr. Clair’s Place,” “Old Water,” “Making a Change,” “Bee Wise” 및 시 “To the Young Wife”의 경우 *The Yellow Wall-paper, Herland, and Selected Writings*. (New York: Penguin, 1999) 을, “If I Were a Man”의 경우 *The Charlotte Perkins Gilman Reader*. Ed. Ann J. Lane (New York: Pantheon, 1981)에 수록된 것을 사용하였다. 이하 문학 텍스트의 인용은 괄호 안에 면수만 표기하였으며, 길먼의 자서전과 에세이의 인용은 저자명을 제외한 책이름과 면수를 괄호 안에 표기함.

2) 「누런 벽지」를 다룬 국내의 논문으로는 이 소설을 여성주의 고딕소설로 평가한 김

여성 억압적 현실의 모순이 작가가 실제로 겪었던 경험에서 우리나라의 것이라는 점에 동의 한다.³⁾ 첫 번째 결혼과 출산 이후 길먼은 심리적 고통과 우울을 겪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당시 유명한 신경 정신과의사인 미첼(S. Weir Mitchell)을 찾아간다. 그러나 여성에게 펜과 붓을 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지적인 활동은 두 시간 이내로 제한하며 강제로 침대에서 절대적 안정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 그의 휴식치료(rest cure)는 오히려 길먼의 신경쇠약 증세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권위적인 의사의 지시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할 것을 강요하고 모든 외부적 자극을 박탈한 채 고립시킴으로써 환자를 정신적 마비상태에 빠뜨리는 이 치료법은 그녀에게 “정신을 거의 놓아버릴 만큼” 견디기 힘든 “정신적인 고문”에 가까웠고(*The Living* 96), 이때의 경험은 단편 「누런 벽지」에 고스란히 되살려졌다(“Why I Wrote” 3). 길먼이 보기에 휴식치료는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의 권위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백치가 되도록 하는 억압적인 가부장제의 산물이었다. 괴로워하는 미친 아내의 끔찍스러운 절규가 생생하게 그려진 소설 「누런 벽지」의 예상치 못한 성공은 길먼이 계속해서 집필과 강연활동을 왕성하게 펼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어주었고, 이와 같은 외부와의 생산적인 접촉을 통해 그녀는 스스로 우울증을 떨칠 수 있었다. 이러한 자전적 경험을 토대로 길먼은 글쓰기의 힘을 빌어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여성 억압적인 사회 통념과 신화를 통렬하게 비판함과 동시에 이들을 대체할 대안적 이야기를 만들어내려 애썼다. 따라서 그녀의 글은 자신의 상처를 보듬으려는 쓰기치료(writing cure)의 성공적인 사례이자, 자기치유를 넘어 사회를 치유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누런 벽지」 이후 길먼이 발표한 몇몇 단편소설과 시, 그리고 자서전 『샬롯 퍼킨스 길먼의 생애: 자서전』(*The Living of Charlotte Perkins Gilman: An Autobiography* 1935)을 중심으로 작가가 수행하는 글쓰기를 다양한 치료의 관점—쓰기치료, 이야기치료(talking cure), 독서치료

정매와 엘렌 식수의 논의에 기대어 「누런 벽지」를 여성적 글쓰기의 한 사례로 보는 김진옥 외에도, 푸코가 제시한 판옵티콘, 훈육과 처벌, 저항의 개념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한 조애리를 비롯해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된 다수의 연구논문들이 있다.

3) 대표적인 비평가들로 길버트와 구바(Sandra Gilbert and Susan Gubar), 앤 레인(Ann J. Lane), 다이엔 프라이스 헨들(Diane Price Herndl) 등이 있다.

(Bibliotherapy)에서 살펴보고, 그녀의 글쓰기가 단순히 환자 개인의 증상과 병을 치료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성 억압적인 의학담론을 변화시키려 했던 시도였으며, 나아가 작가가 속한 사회 전체를 변혁하고자 하는 정치적 기획이었음을 논하고자 한다. 푸코(Michel Foucault)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의학담론은 지식 배치의 장 자체가 변화한 결과로 등장하여 새로운 사회적 제도로서의 병원을 비롯해 관련된 의학적 사유 및 실천의 새로운 양식을 생산했다(vii). 따라서 의학담론은 단순히 질병에 관한 객관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질병을 두고 과학자/의사 및 대중들이 갖게 되는 도덕적 판단과 사회적 태도, 정치적 편견 등을 모두 포함한다. 결국 의사의 진단과 치료는 단순히 의학적 지식을 환자에 적용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많은 비평가들은 휴식치료를 주도했던 미첼이 당시 여러 매체에 기고를 통해 여성 히스테리 환자들은 “가정의 건강한 사람들의 피를 빼는 흡혈귀들”(Vertinsky 12)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전통적인 역할을 거부하고 지나치게 많이 교육받은, 대학을 나온 여성들 사이에서 발병율이 높다고 주장해 왔음을 지적한다(Cutter 154). 따라서 그의 휴식치료는 여성에게서 언어를 박탈하고 “전적인 재교육”을 시키는 것, 남성의 권위에 완전히 복종하는 순응적 존재로 재사회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Thrailkill 540).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 환자들은 불가피하게 퇴행을 겪어야 했다. 그들은 떠먹여주는 밥을 먹고 몸을 씻겨줄 사람과 마사지 받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으며, 식후에는 한 시간씩 눕고 가능한 한 항상 아이의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의사의 권고에 따랐다(*The Living* 96). 이는 의학담론이 질병의 치료를 넘어 사회 교정과 통제의 수단으로써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떠한 상태가 건강한 상태인지 결정하고 병명을 붙이며 그에 따른 치료법을 제시하는 담론 안에는 질병과 의학적 경험을 둘러싼 권력 관계가 이미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문학을 통해 기존의 성차별적인 의학담론을 고발하고 성 중립적인 의학담론을 제시한 길먼의 시도는 19세기 미국의 사회 구조와 권력 관계에 직접 개입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려 한 정치적 기획이었다. 길먼은 자서전을 통해 미첼의 치료법을 바꾸기 위해 「누런 벽지」를 썼다고 밝혔으며, 그에게 원고를 보내고 몇 년 뒤, 자신의 소설을 읽은 그가 치료법을 바꾸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며 크게 기뻐했다(*The Living* 121). 이러한 일화는 글쓰기를 사회의 개혁을 이끌어내는 촉매제이자 “충격요법”(Thraikill 545)으로 활용했던 길먼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 이때 실제로 의사의 치료법에 영향을 끼치고 여성 환자들의 운명을 바꿔놓은 작가 길먼은 또 한 명의 여성의사가 된다(Cutter 159). 다시 말해, 길먼의 글쓰기 행위는 병든 사회를 치유하려는 여성의사이자 개혁가의 ‘치료행위’를 은유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와 같이 사회구조의 변혁에 직접 개입하는 사회개혁가이자 여성의사로서의 길먼의 면모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본 논문은 단편소설 뿐 아니라 그녀가 시인, 잡지 발행인, 강연자로서 세상을 향해 했던 발언들을 주의 깊게 살핀다. 이를 위해 「누런 벽지」 이후에 발표된 몇 편의 단편소설을 비롯해 시와 자서전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본 논문은 길먼이 대안적인 의학담론 뿐 아니라 여성의 건강과 사회의 건강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음을 탐색하고자 한다.

Ⅱ. 남성적 의학담론에 개입하는 여성의사: 「누런 벽지」와 「의사 클레어의 진료소」

「누런 벽지」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아내/환자와 남편/의사에 관한 이야기이다. 아내의 기분에는 무관심한 남편/의사는 그녀에게 창문과 벽에 “보호 철창”과 “고리”가 달려있고 군데군데 “벽지가 찢어져 있는” 방에서 휴식할 것을 강권한다(168).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와 같이 종속적 위치에 놓여있는 아내/환자는 “개인적으로 나는” 그의 치료법에 “동의하지 않고” “취미에 맞는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기분전환을 하는 편이 내게 더 이로울 것 같다”(166)는 생각을 하지만 이를 입 밖에 내지 못한다. 그녀가 자신의 병에 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려 들면 남편은 항상 말을 막고 그녀를 “안아 침대에 누이고 그녀가 지칠 때까지 책을 읽어주기 때문”이다(173). 언어를 빼앗긴 여성은 점차 심각한 광기 속으로 빠져든다. 결국 온 사방의 벽지를 뜯어 놓고 스스로 목에 밧줄을 묶은 채 방안을 기어 다니는 아내를 그린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오랫동안

비평가들 사이에서 이것이 과연 여성의 해방을 상징하는 것인가 아니면 실패를 암시하는 것인가 하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긍정적으로 소설의 말미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비평가인 길버트와 구바(Gilbert and Gubar)는 “벽지 뒤에서 기어 나와 멀리 환한 햇빛 속으로 길게 이어진 길까지 빠르게 기어가는” 여성의 모습이 “가부장적 시학에 의해 정의된 텍스트에서 벗어나 그들 자신이 세운 권위의 광활한 공간으로 나아가는 19세기 여성 문학가의 경로와 다르지 않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여성 화자가 “텍스트의 무의 벽 뒤에 있는 마비된 세계로부터 탈출”했다고 보고, 이를 “질병으로부터 건강으로의 탈출”이라고 읽는다 (Gilbert and Gubar 91).

그러나 본 논문은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 여성화자의 해방이 아니라, 남성 의사의 독단적인 진단과 처방에 복종하는 여성 환자는 ‘치료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본다. 즉, 남성 중심적 의학담론 안에서 여성 히스테리 환자는 치료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네 발로 기는 여성화자는 해방을 향해 나아간다고 보다는 오히려 치료의 실패와 그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이 정신이상의 상태에 빠져버린 환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은 이후에 발표된 단편 「의사 클레어의 진료소」 (“Dr. Clair’s Place” 1915)와 함께 이 소설을 읽을 때 더욱 분명해진다. 「누런 벽지」가 휴식치료의 부조리성과 폭력성을 고발하는데 치중해 있다면, 여성의학의 치료법을 전면에 내세우는 「의사 클레어의 진료소」는 휴식치료를 대신할 다른 방식의 치료법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단편은 성별이 서로 다른 두 명의 의사가 여성 우울증 환자와 맺는 각각의 관계를 그리고 있기에 나란히 읽을 때 비로소 길먼의 목적의식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의사 클레어의 진료소」는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여성 환자가 여성의학의 치료를 통해 치유되는 이야기이다. 스스로를 의사 클레어의 “졸업생 환자”라고 칭하는 화자 ‘나’는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심각한 여성 우울증 환자 옥타비아(Octavia Welch)에게 자신이 받은 치료법을 권한다 (281). 흥미롭게도 소설은 소개자의 일인칭 서술에서 시작해 여성의학 클레어의 진료를 받고 썼을 듯이 병이 나은 옥타비아의 일인칭 서술로 끝이 난다. 이 치유된 여성들의 중첩된 서술을 통해 소설 전면에 부각되는 것은 여성의학의

치료법이다. 그녀는 환자에게 자연 속에서 하는 하이킹과 등산, 텐트를 치고 캠핑하는 등 신체적 활동을 권할 뿐 아니라 온갖 책과 잡지가 구비된 서재에서 마음껏 즐기는 독서와 같은 정신적 활동도 장려한다. 또한 뜨개질과 수놓기, 정원 가꾸기를 비롯해 음악 감상, 춤추기, 미술활동과 맛보기와 같이 감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권장한다(283). 무엇보다 「누런 벽지」의 남성의 사와 대조되는 점은 환자에게 자신의 증상과 병에 관해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것이다.

그런 뒤 그녀[클레어]는 내가 말하고 싶었던 나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하게 했다. 이따금씩 질문을 하거나 받아 적으면서, 일종의 차트에 이 모든 것을 기록했다.

Then she[Clair] let me tell her all I wanted to about myself, asking occasional questions, making notes, setting it all down on a sort of chart. (285)

「누런 벽지」의 아내와 달리, 이 여성 우울증 환자는 의사에게 “말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으며, 그녀의 말은 귀중하게 ‘받아 적힌다.’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환자는 비로소 편안함과 기분이 나아지는 것을 느낀다. 이는 「누런 벽지」의 여성 환자가 남편/의사의 감시 아래 다른 어떤 사람과도 소통할 수 없었고, 오로지 일기를 통해서만 그녀의 생각과 억압된 욕망을 표출할 수 있었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아내가 몰래 숨어서 쓰는 글은 그 자체로 가부장적 통제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소설 속에서 그녀가 적은 메시지는 누구에게도 소통되거나 전달되지 못한다. 결국 관계 맺기에 실패한 아내는 정신이상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의사 클레어의 진료소」의 여성 환자가 완쾌될 수 있었던 것은 글쓰기가 소통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그려진다. 클레어는 환자에게 침대 밑에 노트를 두고 “자신만의 차트를 적으라”고 권하는데(286), 이를 이용해 환자는 자신의 병과 증상에 관해 의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상담할 수 있다. 즉, 길먼은 휴식치료에 대한 대안적 치료법으로 이야기 치료와 쓰기치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누런 벽지」 만으로도 길먼이 이미 이야기치료와 쓰기치료를 제안하고 있다고 보는 제인 트레이킬(Jane F. Thrailkill)과 헨들(Diane Price Herndl)은 흥미롭게도 둘 다 이 소설을 프로이트의 여성 히스테리 환자인 안나 O(Anna O)와 도라(Dora)의 사례와 비교한다. 트레이킬의 평가에 따르면 「누런 벽지」는 정신분석이라는 새로운 의학담론에 문학이 개입한 역사적인 선례이다(Thrailkill 527). 이는 길먼이 미첼로 대표되는 기존의 의학담론—환자를 육체로 환원하여 보고 육체의 증상만을 치료하려는 관행—에서 벗어나 환자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신분석으로의 담론변화를 포착하여 문학적으로 표현해냈음을 뜻한다. 헨들은 프로이트가 아닌 환자 안나 O야말로 이야기 치료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라고 지적하면서(Herndl 67), 길먼의 글쓰기 행위 또한 안나 O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쓰기 치료를 만들어낸 선구자적 행위라고 평가한다. 비록 「누런 벽지」의 여성화자는 본인이 쓰는 글에서 치유의 혜택을 얻지 못했지만, 대신 작가는 여성독자들을 향해 의사의 잘못된 권고에 불복종하고 글쓰기를 선택할 때 신경쇠약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Herndl 74).

그러나 「누런 벽지」에서 시작해 「의사 클레어의 진료소」까지 문학을 통해 길먼이 제안하고자 했던 대안적 의학담론은 단순히 프로이트의 이론을 예견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급진적으로 뛰어 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⁴⁾ 미첼의 치료법이 여성 환자의 이야기를 무시한 채 육체의 증상만을 치료하려 한 잘못된 접근법을 취했다면, 프로이트의 치료법은 여성 환자의 이야기를 듣지만 여전히 이를 남성의사의 의도에 따라 해석하고 진단하는 데 이용할 뿐이다. 두 담론은 여성 환자를 남성적 의학담론의 권위 아래에 종속시키고, 여성의 육체와 정신을 남성 의사의 기준에 맞춰 해석하고 진단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때 의사가 내리는 진단은 트레이클러(Treichler)가 말하는 “여성들에 관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언어화이자 사회적 운명을 예정 짓는” 선고(sentence)에 가깝다(Treichler 70). 이들과 달리 길먼이 그린 여성의사의 치료방식은 뚜렷

4) 1892년에 출판된 「누런 벽지」는 안나 O의 사례를 담고 있는 프로이트의 『히스테리 연구』(*Studies on Hysteria* 1895)와 도라의 사례가 담긴 『히스테리 사례분석의 단편』(*Fragment of an analysis of a case of hysteria* 1905)보다 시기적으로 앞선다.

한 차이를 가진다.

의사 클레어는 하루에 두 번씩 노트와 연필을 들고 나를 방문했다. 그녀는 내게 여러 가지에 관해 세심하게 물어보았다. 그 질문은 의사로서 환자에게 하는 의례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귀중한 진리를 탐구하는 과학 연구자의 질문이었다. 그녀는 내게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환자들에 관해 이야기 해주기도 했다. 클레어는 그 환자들을 관찰하고 내린 분석을 두고 나와 상의했고, 나의 경우에 관해서도 반복해서 함께 상의했다.

Dr. Clair came in twice a day, with a notebook and pencil, asking me many careful questions; not as a physician to a patient, but as an inquiring scientific searcher for valuable truths. She told me about other cases, somewhat similar to my own, consulted me in a way, as to this or that bit of analysis she had made; and again and again as to certain points in my case. (286)

그녀는 환자로 하여금 “말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했을 뿐 아니라 “귀중한 진리를 탐구하는 과학 연구자”처럼 환자의 말에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클레어는 환자에게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환자들에 관해 이야기” 해주고 “그들을 관찰하고 내린 분석을 두고 환자와 상의”했으며 환자가 본인의 병에 관해 직접 적은 “차트”를 두고 의사와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환자가 자기 자신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환자는 진단받고 해석되어야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질병을 의사와 함께 진단하고 치료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주체인 공저자(“coauthor”)가 된다(Cutter 168). 길먼은 이러한 환자와 의사 사이의 협력적 공저의 관계야말로 진정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누런 벽지」의 비극을 뒤집듯 소설의 말미에서 클레어의 치료를 받던 옥타비아는 모든 병이 씻은 듯 나아 “정말로 행복하다”(288)고 말할 뿐 아니라 여의사의 보

조로 일하며 다른 환자들의 치유를 돕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길먼은 의사에게 독단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환자에게 복종을 강요하던 기존의 의학담론을 넘어서는 대안적인 의학담론을 문학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Ⅲ. 가정과 사회를 치료하는 여성작가/의사: 「변화 일으키기」, 「젊은 아내들에게」, 「오래된 물」

남성의사는 완치시킬 수 없었던 여성 우울증 환자를 치료한 클레어를 비롯해 길먼의 작품 곳곳에는 ‘여성의사’가 등장한다. 프레드릭 위그너(Frederick Wegener)에 따르면 길먼은 여성의사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평생에 걸쳐 여러 여성의사와 서신을 교환하였으며 친밀하게 지냈다. 길먼은 편지와 일기, 자서전 곳곳에 반대와 차별을 무릅쓰고 남성들 틈바구니에서 의학을 공부했던 최초의 여성들에 대한 찬사를 적어두었으며, 여성의사야말로 사회 개혁을 이끌어낼 동력이라고 평가했다. 항상 길먼의 마음속에서 “여성의사란 앵글로-아메리칸 문화적 지형에서 가장 도발적이고 급진적인 새로운 존재인 ‘신여성’(New Woman)의 원형”이었고, 이들 여성들은 “스스로에게 고용되어 자발적으로 일하며 사회에서 유용한 역할을 맡는다”고 여겨졌다(Wegener 56). 앞서 살펴본 「의사 클레어의 진료소」 외에도 장편 『핵심』(The Crux 1910)⁵⁾ 등 길먼의 소설 곳곳에 등장하는 지혜롭고 용감한 여성의사들은 여러 작품에서 그 성격이 변주되어 나타나면서 단순히 직업을 가리키는 것을 넘어 가정 내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나아가는 여성들은 은유하는 개념으로 확장된다.

예를 들어 단편 「변화 일으키기」(“Making a Change” 1911)에서 젊은 아

5) 뉴잉글랜드의 여성들이 서부로 이주하여 남성들을 위한 하숙집을 열어 성공하는 스토리를 그리는 『핵심』은 남성주인공이 아닌, 여성주인공의 서부개척 이야기로서 의의를 지니며, 길먼이 그리는 유토피아 사회에 대한 상상력이 공유되어있다는 점에서 길먼의 페미니스트 유토피아 공상소설 『여자만의 나라』(Herland 1915)와도 접점을 갖는다. 특히 『핵심』에는 진취적이며 독립적인 여성의사 벨에어(Jane Bellair)가 주요 인물 중의 한명으로 등장한다.

내 줄리아(Julia Gordins)는 결혼 후 가사노동과 아기 양육을 위해 평생 해왔던 음악과 음악가로서의 미래가 사라지자 자아를 잃어버린 듯한 절망감에 빠진다. 더구나 육아에 아무런 재능도 소질도 없어 서툰 솜씨로 아기를 달래지만 매번 아기를 울리기만 하는 줄리아는 이 상황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시도하려 한다. 다행히 위기상황을 눈치 챈 시어머니 고딘스 부인(Mrs. Gordins)은 단호하게 나서 “변화”를 강구한다.

오, 이 가없는 것, 내 소중한 딸! 우리가 그동안 네게 제대로 신경써주지 못했구나, 프랭크와 내가 말이야! 그러나 기운 내렴. 이제 네게 정말로 멋진 계획을 들려줄 테니 말이다!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는 거야! 들어봐라!” 그리고 창백한 젊은 아기 엄마가 마음에 흡족할 만큼 보살펴지고 돌봐지면서 조용히 누워있는 동안, 위대한 계획들이 논의되었고 결정되었다.

Oh, my dear girl— my precious daughter! We haven't been half good enough to you, Frank and I! But cheer up now— I've got the loveliest plan to tell you about! We are going to make a change! Listen now!” And while the pale young mother lay quiet, petted and waited on to her heart's content, great plans were discussed and decided on. (244)

줄리아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한 가정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올 이 변화는 “위대한 계획”으로 지칭된다. 한 가정에 불어 닥친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사적 영역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인 것을 넘어 사회를 변모시킬 수 있는 “위대한 계획”일 수 있음이 암시되는 것이다. 이 계획은 고딘스 부인이 줄리아 대신 아기를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녀가 보기에 음악에 재능이 있는 줄리아가 서툰 육아로 시간을 헛되이 소비하는 것은 사적인 손실일 뿐 아니라 사회적인 손실이기도 했던 것이다. 아기를 돌보는데 매우 능숙한 솜씨를 가졌던 고딘스 부인은 이에 멈추지 않고 아파트 위층을 빌려 ‘유아원’(baby-garden)을 차린 뒤, 줄리아의 아이를 비롯해 이웃집의 아이들을 맡아 돌본다. 이로써 그녀는 경제적 수입을 얻게 되며, 한편 육아의 부담으로부터 해방된 줄리아도

전처럼 자신의 적성에 맞춰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함으로써 생기를 되찾는다.

이때 전문화된 공동 양육과 소질에 맞는 역할을 되찾음으로써 가정의 위기를 해소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지혜로운 나이 든 여성 고딘스 부인은 “변화를 일으키는” 여성의사로 은유될 수 있다. 레인은 길먼의 작품 속에서 여자라면, 남편이라면, 아이라면 이러저러해야한다고 사회가 요구하는 고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을 찾도록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는 이가 대체로 여성의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나이든 여성임을 지적한다. 지혜로운 중년여성들은 남편이 죽고 난 뒤 미망인의 삶을 두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내어 놓거나 여성이 집을 떠나 공적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Lane 290).

여기서 가정의 위기를 알아채고 변화를 만들어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안적인 사회의 상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는 여성의사는 작가인 길먼 자신을 은유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글쓰기치료를 통해 스스로를 치유했던 작가 길먼은 이제 글쓰기를 통해 여성독자들을 일깨우고 치유되도록 돕는 상담가이자 의사로서의 역할을 자처한다. 이를 잘 드러내는 것이 화자의 목소리가 명확한 길먼의 시편들이다. 「젊은 아내들에게」(“To the Young Wife”)라는 제목을 가진 다음과 같은 시에서 화자는 단호한 어조로 여성들에게 집안에만 머물고 있는 지금이 만족스러운지 묻는다.

있었니? 네가 얼마나 오랫동안
은처럼 빛나던 소녀시절에
위대해지기를, 고통이 가득한 이 세계를 돕기를,
국가에 이바지하기를, 정말로 현명해지기를
그리고 정말로 강해지기를
얼마나 꿈꿔왔는지.

확신하니, 너는 정말로 이 길이
여성의 의무를 다하는 오로지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Have you forgotten how you used to long
 In days of argent girlhood, to be great,
 To help th groaning world, to serve the state,
 To be so wise—so strong?

And are you quite convinced that is the way,
 The only way a woman's duty lies— (331)

“결혼한 지 삼년쯤 지난 젊은 아내”를 칭자로 지목하고 있는 이 시의 화자는 단도직입적으로 소녀시절에 꾸었던 꿈들을 잊은 채 아내와 엄마로서 걸어가는 이 길만이 네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길이라 여기느냐고 묻는다. 이러한 지적을 통해 길면이 주장하는 것은 여성들이 가정이라는 사적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적영역에 진출해 자아실현과 사회 개혁을 이루는 제 2의 여성의 사 또는 작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의 변화를 넘어 사회의 변화를 이뤄내려는 여성작가/의사로서 길면이 매진한 일은 사회에서 통용되던 여성에 관한 ‘건강함’의 정의를 바꾸려는 것이었다. 길면은 여성은 허약한 존재라는 신화에 맞서 중산층 여성의 건강증진으로 사회와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려 하였다(Vertinsky 7).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길면은 스스로도 평생 신체 단련과 운동에 매진했으며 관련된 주제로 여러 편의 글들을 발표했다.⁶⁾ 특히 그녀의 자서전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실려 있다. 1891년 길면은 여성들을 위한 체력단련 교실을 열고자 닥터 브룩(Dr. Brook)을 찾아갔으나 수업을 원하는 인원이 너무 적어서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녀는 브룩으로부터 학생 서른 명을 모아오면 수업을 열어주겠다는 답을 받아냈고 비록 그만큼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결국 체육 수업을 여는데 성공했다. 이 수업은 일주일에 두 번씩 열렸다(*The Living* 66).

6) 이러한 주제를 다룬 길면의 글로는 「집안일과 운동」(“Homework and Athletic.” *Women’s Journal* 36 (1906): 75. 「근육단련을 통한 정신단련」(“Mending Morals by Making Muscles.” *Saturday Evening Post*, May 19 (1900): 1078), 『남자가 만든 세계』(*The Man-Mand World* 1911) 등이 있다. Vertinsky 23 참조.

일주일에 두 번 씩 체육수업에서 나는 매번 1마일을 속도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람처럼 가볍게 달렸다. 나는 여전히 다른 젊은 여성들보다 더 잘 달릴 수 있었다. 나는 장애물 넘기와 점프를 할 수 있고 매듭을 묶어둔 밧줄을 타고 오를 수 있으며, 손으로 매달려 사다리를 타고 머리 높이까지 발차기를 할 수 있으며 체조 링도 다룰 수 있다.

Going twice a week, each day I ran a mile not for speed but wind, and can still run better than many a younger woman. I could vault and jump, go up a knotted rope, walk on my hands under a ladder, kick as high as my head, and reveal in the flying rings. (*The Living* 67)

이처럼 건강한 신체를 갖추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길먼은 단편 소설에서도 허약하고 의존적인 여성이 아닌, 창조적이고 힘이 넘치며, 독립적이고 강건한 새로운 유형의 여성들을 묘사했다.

예를 들어 「오래된 물」(“Old Water” 1911)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엘렌(Ellen)은 길먼이 제시하는 건강한 신여성의 표본과도 같은 존재이다.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아름다움을 물려받았을 뿐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넘치는 활력과 스포츠를 좋아하는 기질을 물려받았다. 특히 실용적인 성격을 가진 엘렌은 여성을 찬양하는 연애시가 실제로는 여성들을 “사랑에 목을 매어서 죽게 만든”다고 믿고 매번 남성시인 펜텍스터(Pendexter)의 구애를 거절하는데, 그럴수록 그는 “너무도 아름다운, 그러나 아직 벌어지지 않은 꽃봉오리 같은 영혼이여!”라는 노골적인 표현으로 더욱더 정복욕을 불태운다(236). 한낱 성적 대상에 불과하기에 여성의 분명한 거부의 의사표시는 오히려 남성의 욕망을 부채질하고 더욱더 적극적인 구애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결국 자신을 거절하는 여성에 대한 분노로 펜텍스터는 엘렌을 껴안고 함께 깊은 호수에 몸을 던지는 파국을 맞는다.

“아!” 그가 울부짖었다. “이게 바로 너의 운명이야!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는 전에 이걸 겪어냈었지! 우리가 같이 살 수 없다면 우

린 같이 죽는 거야!” 그는 그녀를 자신 쪽으로 잡아당겨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키스를 퍼부었다. 그리고 둘은 함께 검은 물 아래로 떨어졌다. * * * “내가 수영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며 엘린이 말했다. “그리고 그는 할 줄 몰랐지. 불쌍한 사람! 오, 불쌍한 사람! 그는 미쳤던 게 틀림없어!”

“Ah!” he cried. “It is your fate! Our fate! We have lived through this before! We will die together if we cannot live together!” He caught her to him, kissed her madly, passionately, and together they went down into the black water. * * * “It’s pretty lucky I could swim,” said Ellen, as she hurried home. “And he couldn’t. The poor man! O, the poor man! He must have been crazy!” (238)

그러나 길먼은 수영을 할 줄 몰랐던 그와 달리 수영에 능숙했던 엘렌만이 살아남는 반전의 결말로 독자들을 놀라게 한다. 이 단편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하는 남성의 손아귀에서 보란 듯이 벗어난 전복적인 생존자로서의 엘렌이라는 여성을 그려냈다.⁷⁾ 길먼은 엘렌이 “어찌나 강인”하고 “빛나는지” 마치 “발키리(Valkyr)”와 같다고 묘사하는데(231), 북유럽 신화에서 신 오딘을 받드는 무장한 처녀전사를 뜻하는 발키리는 매우 매혹적이고 아름다우나 잔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키리로 상징되는 엘렌은 허약하고 남성에게 의존적이며 수동적인 전 세대의 여성과 대조되는 강인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신 여성을 나타낸다. 약함을 여성스러움으로 칭송하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운동 경기에서 남성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체력과 힘에서 뒤지지 않는 엘렌은 신체단련과 계발을 통해 여성도 남성과 같은 육체적·정신적 강인함

7) 이처럼 계속된 구애에 대한 거절의 이야기로 이 소설을 읽을 때 엘렌과 펜텍스터의 이야기는 아폴로의 사랑을 피해 달아나다 월계수로 변하는 요정 다프네 이야기와 공명한다. 그러나 여성이 수동적으로 또는 자기 방어적으로 나무로 변신하는 다프네와 달리, 엘렌의 이야기에서 살아남는 것은 여성이고 사라지는 것은 남성인 펜텍스터이다. 이처럼 그리스 신화와 같이 독자들이 알고 있을 법한 이야기를 뒤집고 다시 쓰는 전략을 통해 길먼은 여성에 관한 역사·문화적 이데올로기의 교정을 시도하고 있다.

을 갖출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애정이 넘치는 아내이자 헌신적인 어머니”로서 “진정한 여성”(true woman)의 표본(32)이라고 불리던 몰리 매더슨(Mollie Mathewson)이 어느 날 갑자기 남성이 된다는 설정으로 시작하는 단편 「내가 만약 남자라면」(“If I Were a Man” 1914)은 「오래된 물」의 경우에서처럼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라는 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를 교정하려는 길먼의 작업을 보여준다.

갑자기 남자가 된 몰리는 전과 다르게 손발이 커지고 체구도 커지자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자신에게 “딱 알맞은 사이즈”가 된 것을 느낀다. 그것은 그녀에게 “새롭고도 즐거운 기분”을 안겨주었다(33).

모든 것이 이제 꼭 알맞았다. 그녀의 등은 안락하게 의자 등받이를 기대고 있었다. 그녀의 발은 편안하게 바닥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발? ... 그의 발! 그녀는 발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어릴 적 그녀가 여학생이었던 시절이래로 그녀의 발이 이토록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느낀 적이 또 없었다. 그녀가 걸자 발들은 단단하고 굳세게 땅을 디뎠다. 빠르고, 가볍고 안전한 걸음걸이었다.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충동에 휩싸여 그녀는 전차를 쫓아 달려가 잡아채 올라탔다.

Everything fitted now. Her back snugly against the seat-back, her feet comfortably on the floor. Her feet? ... His feet! She studied them carefully. Never before, since her early school days, had she felt such freedom and comfort as to feet — they were firm and solid on the ground when she walked; quick, springy, safe — as when, moved by unrecognizable impulse, she had run after, caught, and swung aboard the car. (33)

몰리는 외출할 때 더 이상 하이힐을 신지 않아도 되게 되자 발이 “단단하고 굳세게” 땅에 닿는다는 것에서 예상치 못한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느낀다. 또한 여성의 옷에는 달려있지 않아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호주머니”가 얼마나

편리한지 알게 되자 깜짝 놀란다(33). 이처럼 성별이 뒤바뀌는 상상을 통해 독자들은 그동안 여성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몸을 옥죄는 복식문화와 관습 아래에 있었는지,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스러움/여자다움’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생각해보게 된다. 이는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여성성 대신 ‘건강한 여성’에 관해 새롭게 정의를 내리려는 작가의 노력을 보여주며, 이러한 시도는 건강한 개인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넘어 건강한 사회에 대한 새로운 상을 제시하는 데까지 이른다.

IV. 건강한 여성, 건강한 사회: 「비와이즈」에 나타난 대안적 유토피아 경제 공동체

앞서 언급한 단편 「변화 일으키기」(“Making a Change” 1911)는 각자의 재능과 소질에 따라 직업을 선택한 고딕스 부인과 줄리아의 모습을 통해 가사 노동의 전문화와 공동육아를 비롯해 여성도 남성과 다를 바 없이 공적영역에서 적성에 맞는 임금 노동을 통해 자아실현의 기회를 갖고, 경제적 주권을 가지는 독립적인 주체로써 거듭나야 한다는 길먼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 이는 길먼이 강조하던 대안적인 사회에 대한 밑그림의 일부를 보여준다.

길먼이 추구했던 페미니즘적 유토피아의 상을 가장 잘 그려냈다고 평가받는 글이 장편 『여자만의 나라』(*Herland* 1915)라면, 지면의 한계 상 본 논문에서는 이 소설의 압축본이라 불릴 만한 단편 「비와이즈」(“Bee Wise” 1913)에 주목하기로 한다. 이 단편은 작은 항구마을에 살고 있던 한 여성이 갑작스럽게 종조부로부터 유산을 받게 되었다는 진부한 설정으로 시작하지만, 그 결과는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아간다. 유산을 받은 여성은 한 무리의 여성들과 함께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작은 에덴”(266) 또는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자 모든 인간들을 진정으로 돕는 공간”을 세운다(267). 그녀들의 마을은 잘 짜여진 노동 분업과 사회적 안전망을 갖춘 경제 공동체로써 “부를 창출하고 질서와 안락함, 행복 그리고 인간의 진보를 보장하는 공동육아”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271).

“우리 조합을 결성하자. 밖으로 나가서, 정착하고, 세우고, 운영 하는 거야. 표본 마을을 만드는 거지. 세계에 내놓을 새로운 예를 만들자구. 여성의 노동과 세상을 위한 노동의 장소로 말이야. ... 어때??”

“... I propose that we form a combination, go out there, settle, build, manage—make a sample town—set a new example to the world—a place of woman's work and world—work too What do you say??” (266)

자랑스럽게 세계에 내놓을 “표본 마을”로 제시되는 이곳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공급하고 면직물 산업과 농업, 임업, 축산업이 발달했으며 병원과 영아원, 유아원, 학교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을 고루 갖췄다. “비와이즈”(Beewise)라는 이름이 붙은 이 마을은 편하고 아름답게 디자인된 수공예 옷과 가죽 공예품을 수출해 이익을 창출한다(269). 이곳에서 여성들은 각각 “어머니”, “교사”, “간호사”, “목사”, “의사”, “매니저”, “예술가”, “엔지니어”로써 각자의 소질과 재능에 따라 노동에 종사하며 “결혼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꿈꾸는 생생한 희망”에 부풀어있다(265). 이들이 만들어낸 마을 공동체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곧 다른 곳으로도 퍼져 나가 여러 군데에 비슷한 마을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생산품의 가치를 높이고, 건강과 평화, 번영, 구성원들의 행복감을 높이는 것을 중요시했다”(271).

이처럼 길먼이 그려내는 대안사회는 가사노동을 전문화하고 가정을 개혁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자신의 적성과 재능에 맞는 노동으로 자아를 실현하는 유토피아적인 공간이다. 이처럼 길먼은 문학을 통해 건강한 개인을 넘어서 건강한 사회에 대한 새로운 상을 제시하려 한다. 비와이즈에는 남성의 보호를 필요로 하며 연약한 척 하거나 두통 또는 히스테리로 몸져 누워있는 여성들이 없다. 생물학적 어머니라고 해서 모든 양육의 부담을 떠맡지도 않고 모든 여성이

꼭 결혼과 출산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여성들이 생물학적 특성을 한계나 억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에서 본연의 주체적인 자아를 표현할 수 있을 때 건강한 사회가 건설될 수 있다. 결국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이 맡은 역할을 바꾸려 했던 길면의 시도는 ‘건강함’의 정의를 바꿈으로써 의학담론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사회의 개혁을 이루려는 노력이었다고 하겠다.

V. 맺음말

길면은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서구 전통 철학적 담론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합일을 주장한 선구자적 사상가였다. 그녀는 글쓰기, 그림그리기 등 자유로운 정신적 영역의 탐구와 등산 및 꾸준한 체육 활동을 통한 신체 단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평생 글쓰기와 강의, 체육활동에 매진했다. 단편 「의사 클레어의 진료소」를 통해 우울증에 빠진 여성 환자들을 치유하는 여성의사의 상을 제시한 길면은 스스로 여성의사가 되어 ‘가정의 천사’라는 억압적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절망 속에서 병들어 가던 당시의 미국 여성들을 치유하고자 했다. 각자 꿈꿔왔던 미래를 저버린 채 재능과 소질에 상관없이 가정에 고립되어 서툴고 잘못된 방식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요리하면서 괴로워하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여성에게, 길면은 가정의 변화, 나아가 사회의 변화를 설파한다. 「변화 일으키기」에 따르면, 여성들은 사적 영역에서 모든 일들을 혼자 할 필요가 없으며, 대신 전문화된 공동양육과 적성에 맞는 노동으로 가정 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이는 아이대로 만족스러운 보살핌과 양질의 교육을 받게 되고 어머니도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해 활기와 생명력이 넘치는 장소로 변화된 가정은 다시 건강하고 진보된 사회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된다. 길면은 「오래된 물」과 「내가 만약 남자라면」을 통해 허약하고 의존적 여성에 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창조적이고 독립적이며 정신과 신체 모두 강인한 젊은 여성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비와이즈」는 성별이 아닌, 재능과 소질에 따라 공사영역의

구분 없이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동에 참여하고 그로 인해 번영을 구가하는 유토피아 마을 공동체에 대한 길먼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처럼 문학을 통해 건강한 여성, 건강한 사회라는 대안적인 밑그림을 제시함으로써 건강함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보여주는 길먼은 작품을 통해 남성 중심적 의학담론에 개입하고 이를 교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길먼의 작업을 여성작가이자 ‘의사’로서 글쓰기를 통해 병든 사회를 치유하려 한 페미니스트 사회개혁가의 시도라고 명명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인 용 문 헌

- 김정매. 「여성주의 고딕소설: 샬롯 길먼의 『누런 벽지』」. 『영미문학페미니즘』 1. 단일호 (1995): 77-93.
- 김진옥. 「길먼의 『누런 벽지』: 쓰기 치료와 여성간의 유대」. 『근대 영미소설』 14.1 (2007): 35-51.
- 조애리. 「광기 다시 읽기: 『노란 벽지』에 나타난 훈육과 저항」. 『신영어영문학』 21 (2002): 93-104.
- Cutter, Martha J. "The Writer as Doctor: New Models of Medical Discourse in Charlotte Perkins Gilman's Later Fiction." *Literature and Medicine* 20.2 (2001): 151-82.
- Foucault, Michel. *The Birth of the Clinic: An Archaeology of Medical Perception*. London: Routledge, 2012.
- Gilbert, Sandra M., and Susan Gubar. *The Madwoman in the Attic: The Woman Writer and the Nineteenth-Century Literary Imagination*. New Haven: Yale UP, 1980.
- Gilman, Charlotte Perkins. "If I Were a Man." *The Charlotte Perkins Gilman Reader*. Ed. Ann J. Lane. New York: Pantheon, 1981. 32-38.
- . *The Living of Charlotte Perkins Gilman: An Autobiography*. 1935. Wisconsin: U of Wisconsin P, 1991.
- . *The Yellow Wall-paper, Herland, and Selected Writings*. New York: Penguin, 1999.
- . "Why I Wrote The Yellow Wallpaper." *Women* 2 (1913): 3.
- Herndl, Diane Price. "The Writing Cure: Charlotte Perkins Gilman, Anna O., and 'Hysterical' Writing." *NWSA Journal* 88.1 (1988): 52-74.
- Lane, Ann J. *To Herland and Beyond: The Life and Work of Charlotte Perkins Gilman*. Charlottesville: UP of Virginia, 1997.
- Thrailkill, Jane F. "Doctoring *The Yellow Wallpaper*." *ELH* (2002):

525-66.

- Treichler, Paula A. "Escaping the Sentence: Diagnosis and Discourse in 'The Yellow Wallpaper'." *Tulsa Studies in Women's Literature* 3.1 (1984): 61-77.
- Vertinsky, Patricia. "Feminist Charlotte Perkins Gilman's Pursuit of Health and Physical Fitness as a Strategy for Emancipation." *Journal of Sport History* 16.1 (1989): 5-26.
- Wegener, Fredrick. "'What a Comfort a Woman Doctor Is!' Medical Women in the Life and Writing of Charlotte Perkins Gilman." *Charlotte Perkins Gilman: Optimist Reformer*. Ed. Jill Rudd and Val Gough. Iowa City: U of Iowa P, 1999. 45-73.

Abstract

***Charlotte Perkins Gilman: A Woman Writer/Doctor
Taking the Role of a Social Reformer***

Sohn, Jeonghee · Han, Woo Ri

This paper aims to argue that an act of writing, for Charlotte Perkins Gilman, becomes a medium of political intervention into social reform as well as a kind of therapeutic process not only for healing herself but also for affecting the fate of other women of her time. It is well known that Dr. Mitchell who treated Gilman with ‘rest cure’ supposedly changed his treatment after reading “The Yellow-Wallpaper.” This anecdote shows how Gilman's writing served as a kind of medical treatment of a woman doctor, which influenced other fellow doctors. By analyzing her short stories such as “The Yellow Wall-paper,” “Dr. Clair’s Place,” “Old Water,” “Making a Change,” “Beewise,” and “If I Were a Man,” and a poem “To the Young Wife,” this paper examines Gilman’s attempt to rectify the typical images of feminine women and to provide alternative images of healthy women, and by extension, a healthy society. Proposing a new paradigm for health, Gilman as woman writer/doctor becomes an active social reformer who envisions a feminist utopia.

Key words: Charlotte Perkins Gilman, New Paradigm for Health, Social Reform, Woman doctor, Woman Writer

샬럿 퍼킨스 길먼, 건강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사회 개혁, 여성 의사, 여성작가

논문접수일: 2014.11.15

심사완료일: 2014.12.12

게재확정일: 2014.12.23

제1저자

이름: 손정희

소속: 중앙대학교

주소: 156-756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이메일: jhsohn@cau.ac.kr

교신저자

이름: 한우리

소속: 중앙대학교

주소: 156-756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이메일: woorihan77@gmail.com

